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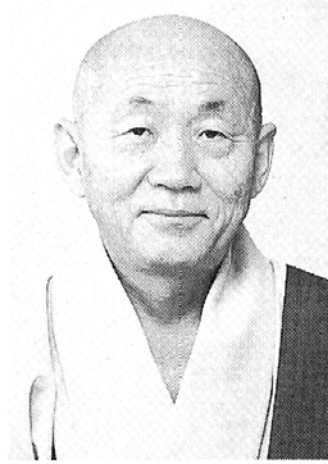
# “21세기 이끄는 교육 틀 마련”

### 조계종 새 교육원장 암 도 스님

## 수요 인터뷰

약력

▲39년 전북 고창 생  
▲55년 상원스님 은사  
로 백양사에서 출가  
▲64년 석암스님 계사  
로 범어사에서 구족계  
수지 ▲72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 3·4·5  
대 중앙총회의원 ▲77  
년 총무원 교무부장,  
총무부장 ▲81년 총무  
원 총무부장 ▲85년  
포교원장 ▲90년 중앙  
승가대 교수



9일 조계종 제2대 교육원장에 선출된 암도 스님은 80년 조계종 중앙승가대교사를 시작으로, 85년 포교원장을 역임한 이후 20여년 동안 포교일선에서 활동했다. 또 동국대 강사와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하는 등 교육분야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스님은 교육원장에 취임한 직후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불교 백년대계를 이끌고 나갈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교육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종단의 생명력은 교육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완성된 교육을 통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은 승가집단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원장 자리가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각오입니다. - 스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승가교육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승가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이념과 목적 및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이념은 간단하게 요약중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에게 이롭지 못한 승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목적은 건성성불에 있습니다. 건성성불

## 연구풍토 조성...교직자 위상 강화 중앙연수원 건립등 재교육 활성화

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참사람교육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20년간 포교 활동을 하며 포교와 교육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교나 교육이나 다 참사람을 만드는 일이지요. 사회교육이 최근들어 기술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듯이 승가교육도 이제는 심성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 교육원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승가교육령 등 현안문제들이 일선 강원의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원을 이끌어갈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모든 스님들과 중도들의 여망이 교육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올바른 승가교육체계화방안이 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미래를 이끄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입종(教育立宗)한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제반문제를 풀어갈 각오입니다.

- 그렇다면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이 제시돼야 할텐데요 ▲당연합니다. 현재 교육원은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재교육 등 네 단계를 교육방법의 기본틀로 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적극 찬성하며, 보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우선 각급교육기관의 체계화를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21세기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승가대학의 인가를 통한 종단의 공식 교육기관화, 교직자 위상제고, 교육행정 체계화는 물론 종단의 연구풍토조성과 교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육성 등이 해결과제입니다. 또 다중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승가가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 자리할 수 있는 재교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업입니다.

- 상설 기초재가교육원 건립계획이 계속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심 출가자들에게 수행의 기초를 다져주는 기초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설 기초재가교육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중앙연수원 건립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가교육에 있어서 재교육이 갖는 의미는 매우 비중이 클 때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중앙연수원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앙중앙연수원 건립은 기초재가교육원 건립과 함께 교육원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제127회 중앙총회(의장 설정)가 9~12일까지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열린 96년 결산검사 등 중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제127회 중앙총회가 회기를 하루 앞당겨 12일 전격 폐회됐다. 이번 총회는 3개월여 끌어온 96 추가결산안과 종단의 현안문제에 대해 결의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본사 직영사할 해제의 건등 종단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개진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쟁점사항은 여전히 종단의 과제로 남아있다.

## 조계종 127회 중앙총회 주요 질의·응답

**중정스님 사임** 일부의원들은 총무원 집행부의 잘못이 크게 작용했다며 원활한 중무행정을 위해 중정스님의 참 뜻을 살피야 한다고 질의. 중정문제가 여론화된 것은 특정이 너무 심하게 들고 나왔기 때문이고 원로회의에서 할 일인데 총무원장에 문제 있다는 것은 오히려 총무원장 담변. 중정스님이 종단현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부분인 재산처분, 사법권을 중회에서 논의해 볼 일이라는 의견 대두. 그러나 구체적 결론 없이 종결됐다.

**종단협 관계** “종단협의회에서 타 종단이 탈퇴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각 종단의 원장들의 모임이니만큼 화합해서 이끌어 가야 할 것 아니냐” 질의. 이에

**무통장 입금문제** (재)불교중앙교회의 서울은행 통장에 현금 5천만원이 총무원 지원비 명목으로 입금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재무부장은 재무부관리통장 아니며 입금액도 재무부로 들어오지 않았고 확인결과

로 인해 사용수익권 어려웠으며 전입 주지의 불법적인 2중입대로 (주)호림이 손해배상액 약 25억 중 3억1천만만 원에 손해배상청구시 패소가능성이 높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 흥행사토지처분과 관련 의원과 재무부측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대부분 재산처분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조사특위 구성 제안. 호법분과위원회서 진상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직영사할** 그동안 총회가 유회 됐던 것은 ‘태풍의 혹’ 직영사할 문제. 직영사할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총회 차원의 직영사할운영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직영사할만 문제 있는 것 아니며 직영사할 조사한다면 모든 사항 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의장단은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 투표결과 반대 34, 찬성 19로 부결됐다. <근>

대해 사회부장은 “종단마다 모두 종단협의 같은 대표인테 왜 조계종만 다 맡아 하느냐” 불평이 높았다. 이 같은 문제는 한중일 실무자회의에서 자리배정을 놓고 더욱 불거졌다. 이때부터 총무원장 스님은 소신을 갖게 됐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장자종단으로서 아랑곳없어 화합해야 한다.” “종단협의회 정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화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흥행사 토지처분** 흥행사는 개혁회의 이 전부터 불법 임대 및 토지매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그런데 96년 2월 8일 재무부담당자가 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사 토지 가운데 14만여평(감정가 5억3천여만원)을 계약하고 약정서상에 ‘잔금 지급전에 분할등기 완료’라고 명시한 이유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해 재무부장은 19년 장기임대

전 사업부장스님의 개인통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변. 이에 대해 무통장 입금표를 제시한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졌으나 대부분 총회의원들의 의견이 서울은행에 사실확인요원본을 밝힐 것을 요구, 12일 서울은행 인사동지점에 확인결과 현재 폐기된 통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점에 원장내역 요청한 상태.

대해 사회부장은 “종단마다 모두 종단협의 같은 대표인테 왜 조계종만 다 맡아 하느냐” 불평이 높았다. 이 같은 문제는 한중일 실무자회의에서 자리배정을 놓고 더욱 불거졌다. 이때부터 총무원장 스님은 소신을 갖게 됐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장자종단으로서 아랑곳없어 화합해야 한다.” “종단협의회 정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화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흥행사 토지처분** 흥행사는 개혁회의 이 전부터 불법 임대 및 토지매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그런데 96년 2월 8일 재무부담당자가 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사 토지 가운데 14만여평(감정가 5억3천여만원)을 계약하고 약정서상에 ‘잔금 지급전에 분할등기 완료’라고 명시한 이유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해 재무부장은 19년 장기임대

전 사업부장스님의 개인통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변. 이에 대해 무통장 입금표를 제시한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졌으나 대부분 총회의원들의 의견이 서울은행에 사실확인요원본을 밝힐 것을 요구, 12일 서울은행 인사동지점에 확인결과 현재 폐기된 통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점에 원장내역 요청한 상태.

대해 사회부장은 “종단마다 모두 종단협의 같은 대표인테 왜 조계종만 다 맡아 하느냐” 불평이 높았다. 이 같은 문제는 한중일 실무자회의에서 자리배정을 놓고 더욱 불거졌다. 이때부터 총무원장 스님은 소신을 갖게 됐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장자종단으로서 아랑곳없어 화합해야 한다.” “종단협의회 정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화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흥행사 토지처분** 흥행사는 개혁회의 이 전부터 불법 임대 및 토지매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그런데 96년 2월 8일 재무부담당자가 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사 토지 가운데 14만여평(감정가 5억3천여만원)을 계약하고 약정서상에 ‘잔금 지급전에 분할등기 완료’라고 명시한 이유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해 재무부장은 19년 장기임대

전 사업부장스님의 개인통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변. 이에 대해 무통장 입금표를 제시한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졌으나 대부분 총회의원들의 의견이 서울은행에 사실확인요원본을 밝힐 것을 요구, 12일 서울은행 인사동지점에 확인결과 현재 폐기된 통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점에 원장내역 요청한 상태.

자식농사를 망치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의 주범인 불량 소년소녀가 늘고있고, 가솔소녀도 늘고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못된 아이로 키우는 10가지 길’을 제시했다. 살생, 도둑질, 싸움, 거짓말 등 10악(惡)을 여의면 10선(善)이 되듯, ‘착한 아이로 키우는 10가지 길’을 뒤집어 정리했다.

①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다 주여라. 아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② 나쁜말을 쓰면 못어 넘겨라.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과 나쁜 생각에 깊이 빠질 것이다. ③ 교육도 하지 말고 크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어라.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뒤떨어 지는것은 부모 책임이다. ④ 잘못을 책망치 말아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쳐 사회에서 책방받게 되리라. ⑤ 옷·신발등을 정리해 주여라.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

다. ⑥ 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여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 먹고 싶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남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 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나 아이의 편이 되어

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심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양육을 통해 밝은 사회 건전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되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 자식농사

다. ⑥ 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여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 먹고 싶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남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 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나 아이의 편이 되어

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심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양육을 통해 밝은 사회 건전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되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다. ⑥ 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여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 먹고 싶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남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 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나 아이의 편이 되어

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심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양육을 통해 밝은 사회 건전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되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다. ⑥ 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여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 먹고 싶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남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 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나 아이의 편이 되어

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심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양육을 통해 밝은 사회 건전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되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다. ⑥ 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여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 먹고 싶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남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 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나 아이의 편이 되어

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심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양육을 통해 밝은 사회 건전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되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다. ⑥ 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여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 먹고 싶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남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 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나 아이의 편이 되어

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심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양육을 통해 밝은 사회 건전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되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다. ⑥ 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여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 먹고 싶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남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 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나 아이의 편이 되어

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심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양육을 통해 밝은 사회 건전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되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 위덕대 군승선발

## 조계종 “의식차이” 반대 진각종 해결방안 고심

조계종이 진각종 위덕대학의 군승후보생 선발 지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위덕대 교학처장 김무생교수와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이 회동을 갖기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현재) 이번 회동은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일 중앙승가대 및 국방부 군승실 관계자들과 ‘중앙승가대 군승후보생 지원대학 인정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덕대를 배제한데 대한 위덕대학의 항의에 따라 이뤄진 것. 지금까지 비교적 잠잠하던 위덕대 군승후보 선발지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라 전망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1일 위덕대의 군승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거부한다는 기존입장에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식이 조계종과 맞지 않는 진각종 위덕대를 20년간이나 군포

교를 전담해 온 조계종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다. 이는 상호 협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진각종의 의식이나 소의경전 등 많은 부분이 조계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거부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진각종은 이같은 조계종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식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조계종 방식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전달해 더이상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각종은 이를 종단 입장으로 공식표명 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쨌든 위덕대의 군승후보 선발지정 문제는 한국불교를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두 종단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우>

## 위덕대 군승선발

## 조계종 “의식차이” 반대 진각종 해결방안 고심

조계종이 진각종 위덕대학의 군승후보생 선발 지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위덕대 교학처장 김무생교수와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이 회동을 갖기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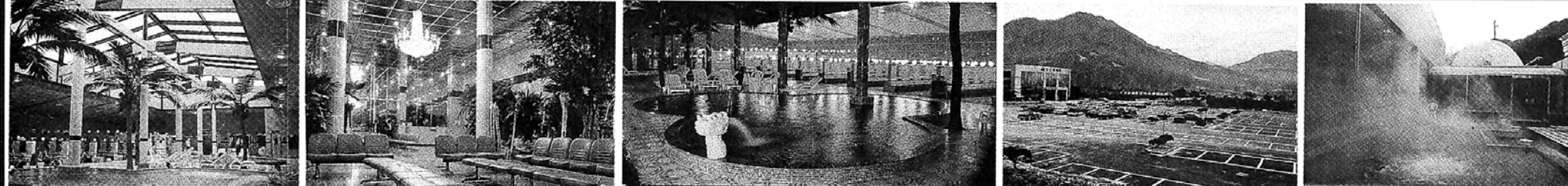
(12일 현재) 이번 회동은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일 중앙승가대 및 국방부 군승실 관계자들과 ‘중앙승가대 군승후보생 지원대학 인정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덕대를 배제한데 대한 위덕대학의 항의에 따라 이뤄진 것. 지금까지 비교적 잠잠하던 위덕대 군승후보 선발지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라 전망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1일 위덕대의 군승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거부한다는 기존입장에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식이 조계종과 맞지 않는 진각종 위덕대를 20년간이나 군포


교를 전담해 온 조계종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다. 이는 상호 협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진각종의 의식이나 소의경전 등 많은 부분이 조계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거부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진각종은 이같은 조계종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식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조계종 방식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전달해 더이상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각종은 이를 종단 입장으로 공식표명 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쨌든 위덕대의 군승후보 선발지정 문제는 한국불교를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두 종단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우>



국내최초 실내 선덴, 아늑한 휴식공간, 초대형 욕장, 충분한 주차공간, 노천탕



##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 세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포천 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일동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일동 사이판

#### 유형천

국내최고의 유형천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잇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과 휴양 레저를 겸해 온가족이 함께 유형천의 신비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 시찰 및 포천군 관광 안내

근심원사 : 지장보살도당(동충유)  
근도피안사 : 비로자나불(칠불) 부처님이 계신곳  
근원아사 : 청정기도도량  
0353)58-8995(상해계곡) \*철새도래지

#### 포천군 관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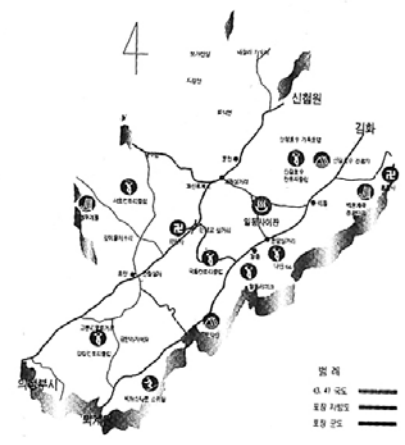
산정호수, 백운계곡, 운악산, 청계산, 관음산, 명성산, 왕방산, 국망봉, 금주산, 고석정, 재인폭포, 안보 관광지(망골)

#### 신도불이

강원 철원지방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봄채소, 싱싱한 과일등 향토장도 마련되었습니다.

#### 교통편

- 시외버스 : 삼봉터미널,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하차
- 자가운전 43번국도(포천-38교-상동삼거리) 우회전(4km) 47번국도(퇴계원-광릉입구-내리-일동-산정호수)우회전(4km)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임리 705번지  
☎(0357)536-2000, 2035